

‘新 육계 사양관리’ 책자의 저자를 만나다 (주)계흥 유재석 대표이사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국내 많은 종류의 가금관련 단행본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론에 충실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이 많아 육계농가 실정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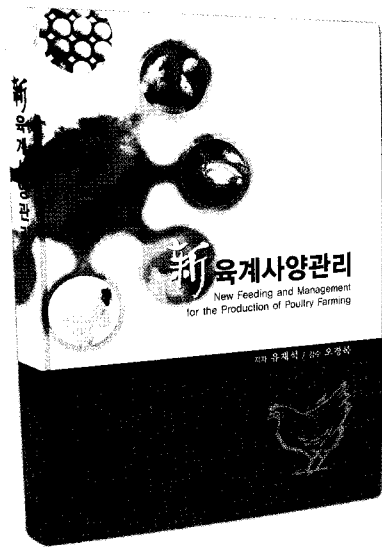
이번에 현장 위주의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발간한 (주)계흥의 유재석 대표를 만나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와 책의 내용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세 번째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A 같은 알(계란)이라도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심정은 아픔을 참으며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 병아리라고 할까요? 감사하지요. 항상 그렇듯이 20여년을 제 생활에 화두가 되어준 닭이 있었기에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병아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양계업에 몸담으셨던 천호그룹 이계조 회장이 닭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저도 더욱 노력해야겠지요.

Q 이번에 발간한 ‘新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A 제가 육계 사양관리를 공부한지 올해가 20년째 되는 해인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닭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닭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결과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닭을 키우는 것은 아무리 오랜 역사가



된다 해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닭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Q 책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A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은 총 7장의 콘텐츠와 칼라 화보, 부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는 육계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고, 2장(육추관리)부터 7장까지 본격적으로 일령별 사양관리 방법에 대해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 중 3~5장까지 8일령~출하 전까지의 관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으며, 6~7장을 통해 출하 전 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록은 총 17개의 주제별 관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보는 1일령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칼라 사진으로 게재했습니다.

Q 한번도 내기 힘든 책을 어떻게 세 번이나 낼 생각을 하셨는지요?

A 축산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도 11월 28일 첫 입사를 경기도 동두천에 있었던 천호인 티그레이션(주)으로 하게 됐습니다.

입사 후 육계농장에서 연탄불을 갈아가면서 실습도 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육계 사육지도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사육 공부를 하려다 보니 마땅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재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 학교수업이 현장과 너무 달라 입사 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몇 개의 관련 서적은 외국 문헌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나라에 맞는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만들어보고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사진도 찍고 농장에 입추하면 뭔가 하나씩은 시험사육을 해보려고 노력했지요. 오직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구나 양계 초보자도 이 책을 보면 닭을 키울 수 있도록 쉽고 현장감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자료도 준비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업계에 몸담은 지 10년이 되는 1999년에 (주)현축의 도움을 받아 단행본으로 '일령별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그 책자를 개

정 증보하여 두 번째 '일령별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발간했고, 올해 20년 되는 해에 新 육계 사양관리'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Q 바램이 있다면요?

A 우리나라 양계역사 50여년이 지나면서 그간 많은 업계 선배님들의 열정과 땀으로 인해 오늘날의 양계업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자급수기'라는 말을 처음 명명했다는 과학시스템 박만 후 사장님처럼 과거 양계 불모지 시대에 고군분투하셨던 업계 선배님들의 역사를 하나씩 찾아보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흥의 창업이념인 정보 공유차원에서 20여년의 육계사육 현장 경험을 떨리는 마음으로 업계에 내 놓았으니 계열회사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에 밀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사육농장에서는 사육성적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계역사에 작은 한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나 스스로 격려해 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041)733-1140 (주)계흥